

#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 국제비교 분석

## The Impa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

: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 교수 백 주 희\*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yongji Univ.

Assistant Professor : Baek, Ju-Hee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much Korean's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U. S. A., Sweden, and Japan, and how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e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 across the countries. By using 2004 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and 200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family modul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Korean's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 were much more traditional than those of U. S. A., Sweden, and Japan, even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 variables. Furthermore, each country showed a distinct pattern in the impa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age and marital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ors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for all the countries. However, gender, the year of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effected on family value orientations only in some countr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Korea was still traditional in terms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 compared with U. S. A, Sweden, and Japan. Although family value orientations were more traditional in Korea than in the other countries, all the countries showed similar patterns of explaining mechanism in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family value orientations. People who were men and married were likely to be more traditional than those who were women and unmarried. However, gender role attitudes showed interesting results. All the demographic variabl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gender role attitudes for Korea, whereas only some of demographic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ors of gender role attitudes for other countries. That is, Korean society showed strong attitudinal differences on the basis of demographic variables. The implication of these differences was discussed.

---

▲주요어(Key Words) : 가족가치관(family value orientations),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 국제비교(international comparison), 인구학적 변인(demographic variables)

---

\* 주 저 자 : 백주희 (E-mail : jxb542@mju.ac.kr)

## I. 서론

한국사회는 지난 20세기 후반을 통틀어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어왔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확대가족이 주류였던 한국의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물론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으나,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이혼율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가족변화의 관심을 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가족변화에 대한 해석은 우리사회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있고 이러한 위기는 '가족해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족변화가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 재구조화'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안호용·김홍주, 2000; 함인희, 2002b). 여하튼, 학계와 일반의 해석이 어떠한지 한국사회의 가족변화가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가족변화는 결혼, 동거, 이혼 등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가족변화와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가족변화의 시점과 변화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분화해왔고, 이러한 형태의 분화는 이혼의 증가, 동거의 출현, 결혼의 지연으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었다(Popenoe, 1987). 동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추세를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동거 중심에서 중산층 이상의 젊은이들,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노년층으로 동거가 확대되고 있다는 몇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동거율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옥선화, 1992; 정자환, 1983; 함인희, 2002a).

이혼율의 증가, 결혼의 지연, 동거율의 증가와 같은 가족변화에는 가족가치관(Family Value Orientations)과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의 변화가 존재하고 내재되어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무너지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가치관이 대두될 때 가족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태도가 먼저인가 행동이 먼저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Glenn, 1996).

우리나라의 가족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가족변화와 가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이혼, 결혼, 동거와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태도와 연결되어 있고 가족형태는 다양화되며 가치관은 근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안호용·김홍주, 2000).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가족의 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지만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국가구성원 모두에게서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나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는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근대적인 것에서부터 근대적인 것까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혼재양상은 가족형태의 변화가 급속할수록 가치가 행동을 따라가지 못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안호용·김홍주, 2000). 즉 우리나라의 가족변화가 그만큼 급속하였기 때문에 비록 형태상으로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국민 내부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근대화 수준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해갈등과 긴장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가족변화의 이면에 정말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혼, 가족, 동거와 같은 가족관련 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국가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와는 다른 시점에,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속도로 이혼, 결혼, 동거와 같은 가족변화를 경험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미 급속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가족가치관이나 성역할태도에서 국민 내 다양성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을 것이며, 현재 급속하게 가족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형태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를 앞질러 국민 내 가치관의 혼재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시점에, 그리고 다른 속도로 가족변화를 경험한 미국과 스웨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동양권 국가에 속해있는 일본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우리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국의 가치관과 태도가 인구학적인 변인(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먼저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속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의 변화는 현재의 급속한 가족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 연령, 결혼 상태와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에 따라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진단해보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의 변화와 가치관

이혼, 동거, 결혼과 같은 가족행위와 관련된 가족변화는 앞서 지적하였듯 한국만의 특수한 경험은 아니다. 미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의 국가들은 현재 한국의 가족변화와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미국학자들을 중심으로 가족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초기에는 David Popenoe를 중심으로 이혼의 증가, 출산의 감소, 결혼의 지연, 그리고 동거의 증가를 가족의 해체로서 규정하고 이를 ‘미국가족의 쇠퇴’라 지칭하였다. Popenoe(1993)는 가족의 쇠퇴를 인구학적인 실체로서 가족크기의 감소로 입증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가족크기의 감소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owan(1993)은 가족 크기의 감소는 태도적인 변화보다는 피임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Popenoe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가족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Glenn, 1996).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제변동이 가족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Amato와 Booth(1997)에 의하면 과거 몇 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경제변동이 이혼율의 증가 및 결혼의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제력 상실이 결혼율의 감소를 낳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Cowan(1993) 역시 가족해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건강보험의 허점과 비급여 출산휴가와 같은 경제,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장애물이 아동가족중심의 생활과 가족가치관의 하락을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행동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분석도 있다. Waite와 동료들(1986)에 의하면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한 경험이 젊은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시켰고 이와 함께 그들의 가치관을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즉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 Popenoe(1993)도 가족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가족의 쇠퇴를 낳았고, 이것이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의 변화는 가치관, 사회적인 구조와 상황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하였고 가족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쇠퇴하기 보다는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Cowan, 1993).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그리고 결혼의 지연과 같은 가족변화를 가족의 해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의 증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가족위기 담론에 관한 체계적 분석으로 함인희(2002c)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함인희는(2002c)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야기된 중산층 가족의 생존위기가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가치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혼율의 증가, 결혼의 지연, 출산율의 저하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앞서 말한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라는 행동의 변화에 가치관의 변화라는 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태도의 변화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경제 자유방임주의의 극대화과 그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초래한 중산층 가족의 계층 하강이동의 위협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거시 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족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생존방식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의 취업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예컨대, 독신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라는 것이다(김혜경, 2001; 안호용·김홍주, 2000; 함인희 2002c). 이렇게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의 노력이 바로 가족의 다양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은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변화를 해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Amato와 Booth(1997), Cowan(1993), Glenn(1996)과 같은 미국학자들의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전통에서 비전통으로 급격하게 움직여왔고 이것이 바로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된다. 과연 몇 십 년 전 우리와 비슷한 가족형태의 변화를 겪었지만 현재 비교적 안정된 가족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동거가 보편화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스웨덴, 우리나라처럼 동양 문화권에 속해있는 일본은 과연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그들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는 우리와 큰 괴리를 보여줄 것인가?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즉,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얼마나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지 국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사회 가족변화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를 추론해보고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다른 국가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려 한다.

## 2. 국제비교 분석의 필요성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이 감소, 그리고 결혼의 지연은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지적 하였듯이 한국 사회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 국가에서도 근대화를 거쳐 가족변화를 경험하였다. 서구 사회의 경우 이혼율의 변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미 가족변화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서구의 가족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변수들을 과연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한 기존연구들(김혜경, 2001; 안호용·김홍주, 2000; 함인희 2002b)은 한국 가족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가족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학자들과 같은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Goode(1963)의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수렴이론에 의하면 산업화·도시화 같은 거시 사회적 변화가 가족생활의 행태와 내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 세계의 가족은 시점은 다르지만 모두 근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인 형태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결혼의 지연이 산업화·근대화로 인한 가족해체의 결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사회도 서구사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가족변화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인 상황은 서구사회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렴이론을 바탕으로 서구의 가족변화에 대한 설명을 한국의 가족변화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따른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근대화의 시점이 늦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빨랐다. 더군다나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가족의 행태라 볼 수 있는 출산율 및 이혼율과 같은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동은 매우 급속했다. 따라서 급속한 변동 이면에 과연 앞서 말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 태도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 태도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한국의 가족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현재 서로 다른 가족변화의 시점에 있는 국가들(미국, 스웨덴,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 한국의 가치관이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덧붙여, 우리사회의 특수성인 급속한 거시사회의 변화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사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 변화는 과연 균등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낳는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결혼 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가치관의 혼재 양상을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가족변화와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태도의 관련성을 좀 더 명확히 밝혀 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 3. 미국, 스웨덴, 일본의 가족변화와 가치관

가족변화의 시점과 변화속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스웨덴 같은 서구국가들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급속한 가족변화를 이미 경험하였다. 그러나 각국마다의 변화의 속도와 그 패턴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 결혼의 지연, 동거의 출현 및 증가를 경험하였다(Ahlburg & De Vita, 1992; Bianchi

& Casper, 2000). 예를 들어 이혼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를 기점으로 그 증가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약 4점대의 높은 조이혼율을 보여주고 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2006). 이러한 가족형태 변화의 이면에는 국가경기의 변화, 여성의 취업률과 지위의 향상, 그리고 이혼, 동거, 재혼 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Cherlin, 1992; Easterlin, 1978; Ruggles, 1997; South & Lloyd, 1995; Thorton, 1985).

스웨덴도 미국과 같은 가족변화를 경험하였지만 한 가지 특이할만한 점이라면 스웨덴 가족의 변화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고 완료되었다는 것이다(Popenoe, 1987). 즉 스웨덴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이혼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2.5 전후의 비교적 높은 조이혼율을 유지하고 있다(Fine & Fine, 1994). 물론 스웨덴의 경우 혼전 동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빨리 출현하였고, 결혼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앞선 일이었다(Hoem, 1997; Popenoe, 1987). 그러나 결혼을 대신해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이혼율은 줄어들지 않았고 꾸준히 2.5점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EUROSTAT, 2004). 이러한 이혼율의 지속에 대해 Hoem(1997)은 동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증가하듯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도 함께 증가하여 결국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스웨덴의 이혼율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시켰다고 해석하였다.

우리와 같은 동양권에 속해있는 일본은 확실히 미국, 스웨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도 이혼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곧 감소하였다(Tanaka, 1992). 물론 1960년대 이후 일본도 이혼의 증가를 경험하였지만 미국과 스웨덴처럼 급진적인 증가는 없었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Curtin, 2002). 그러나 일본의 이혼율은 1990년부터 급진적인 도약을 보였고 현재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후생성 통계정보부, 2004). 이러한 일본 이혼율의 급진적인 증가에 대해 Curtin(2002)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한 양성평등적인 성역할태도의 증가와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관의 증가가 이혼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집단주의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따라서 이혼도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스웨덴, 일본의 이혼, 결혼, 동거와 관련된 가족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가족변화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시점으로는 앞서고 있고 속도에서는 각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근대화되어 있고, 성, 연령, 결혼 상태와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에 따라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면 한국의 가족변화와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태도의 관련성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가족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분석했던 기존의 한국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이라는 용어는 가족가치, 가족이념, 가족의식과 같은 유사한 용어로 혼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공통적으로 결혼, 동거, 이혼, 출산, 자녀양육, 성역할태도, 부양, 가족주의, 효의식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개념을 통해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진단하였으며 가족가치관에 성역할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경신(1998)의 연구의 경우 가족가치관을 다음과 같은 하위개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가족가치관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족가치관은 결혼의 필요성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결혼관',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취업을 아우르는 '성역할관', 자녀의 필요성이나 남아선호사상을 묻는 '자녀관', 부양의식이나 효의식에 관한 '부양 및 효도관', 가부장의식과 친족의식 등과 관련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가족가치관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김태현과 임선영(2004)은 가족이념이라는 개념으로 결혼관, 양성평등의식, 이혼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김경신(1998)의 가족가치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가족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로는 안호용과 김홍주(200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1998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족가치라는 개념으로 국가적인 데이터 활용한 가족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가족가치를 결혼관, 자녀관, 가족부양관의 하위체계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노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 남아선호에 대한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김혜영(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의식이라는 개념으로 결혼관, 성의식, 성역할태도, 부모부양의식이라는 4가지 요인을 포함하여 가족과 관련된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가족가치관에 관한 기존의 한국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이혼, 동거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태도, 성역할 태도, 그리고 자녀양육 가운데서도 남아선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노부모 부양과 남아선호는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동양권 국가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가치관으로서 가족가치관의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비록 한국연구의 가족가치관 척도에서 하위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성역할태도라는 분리된 개념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혼, 동거, 및 자녀양육에 관한 태도로서 가족가치관을 측정하고자 한다.

가족가치관에 대한 기존의 한국연구들은 소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족가치관을 진단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김경신의 연구(1998)에서는 연구대상을 청소년, 중년, 노년세대로 분류하여 이들의 가족가치관 수준을 비교하였는데, 3집단 모두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가치관의 세대 간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김기연 외, 2003; 김태현·임선영, 2004)에서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의 세대차를 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에서 비전통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가족가치관의 연령차를 세대차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세대차가 한국 가족변화와 가족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가족가치관에 관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아마도 분석 데이터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지역적 편차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가족가치관의 세대 간 유사성과 다양성이 혼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또 다른 연구결과(이재경, 1999)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한국의 성역할태도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가치관 변수의 한 가지 요인으로 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김혜영(2005)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을 가족의식이라는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것은 결혼관, 성의식, 성역할태도, 부모부양의식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서 결혼관과 성의식에서는 세대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반면 성역할태도와 부모부양의식에서는 세대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비록 '전국가족조사'라는 국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여전히 국내연구에 머물러 있어 우리사회의 성역할태도가 과연 어떠한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모호하다.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전통과 비전통의 양극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제비교가 필요하다. 물론 성역할태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는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성역할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오직 하나의 항목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단순한 평균비교에 그치고 있다(예: 은기수·이윤석,

2005; 정연택,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분리시킬 것이며, 특히 성역할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더 확장된 성역할태도 척도를 활용할 것이다. 나아가 전국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측정할 국제데이터를 통해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과연 다른 국가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 성, 교육, 결혼유무, 취업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라도 한국은 미국, 스웨덴, 일본과 가족가치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연령, 성, 교육, 결혼유무, 취업유무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라도 한국은 미국, 스웨덴, 일본과 성역할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은 인구학적 변수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은 인구학적 변수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에 의해 수집된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가족관련 조사(김상욱, 2005)와 2002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가족과 성역할 모듈(Scholz et al., 2003)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스웨덴, 일본의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 분석된 연구대상은 총 4698명이며 각국 자료에 대한 소개, 연구대상의 추출방법, 그리고 각국 자료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참고).

##### 1) 한국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 자료는 성균관 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에 의해 수집된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가족

관련 조사(김상욱, 2005)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1974년부터 시행해온 일반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와 세계 40여개 회원국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등을 해마다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제비교연구를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표본은 국내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다단계지역집락 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 추출된 200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2000개의 설문지 중 1315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유효응답률은 65.8%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315명의 한국의 성인남녀를 포함한다.

##### 2) 미국

미국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2년 시카고 대학에서 실시한 일반사회조사(GSS)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국의 일반사회조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다단계지역집락표집추출법으로 2463명의 표본이 추출되어, 배포된 2463개의 설문지 중 1171개의 설문지가 수거된 결과이다. 유효 응답률은 47.5%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의 성인남녀 1171명을 모두 포함한다.

##### 3) 스웨덴

본 연구에 사용된 스웨덴 자료는 2002년 실행된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가족과 성역할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스웨덴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2년 2월에서 3월까지 스웨덴의 18세에서 79세까지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는 확률표집절차에 의해 추출된 2,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진행된 2,000개의 설문지 중 1,080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유효 응답률은 57.2%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스웨덴의 성인남녀 1,080명이다.

##### 4) 일본

본 연구에 사용된 일본 자료는 2002년 실행된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가족과 성역할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자료이다. 이것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2단 층화추출법(two-stage stratified random sample)에 의해 추출된 18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002년 11월 16일에서 11월 24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최종 수거된 설문지 수는 1132개로 유효응답률은 62.9%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분석대상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상 성인남녀 1132명이다.

##### 5) 국가별 자료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국가별분석

<표 1> 국가별 자료의 인구학적 특성

변 수			한 국	미 국	스웨덴	일 본
연 령	평 균(표준편차)		41.92(15.35)	44.94(16.77)	47.00(16.27)	48.83(17.82)
성	남	n(%)	579(44.0)	491(41.9)	498(46.1)	528(46.6)
	여	n(%)	736(56.0)	680(58.1)	582(53.9)	604(53.4)
교육수준	평 균(표준편차)		12.30(3.36)	13.49(2.78)	12.14(3.70)	12.21(2.79)
결혼상태	기 혼	n(%)	880(67.0)	560(47.8)	532(50.0)	805(71.1)
	미 혼	n(%)	433(33.0)	611(52.2)	532(50.0)	327(28.9)
취업상태	취 업	n(%)	705(53.8)	759(64.8)	715(66.4)	555(51.8)
	미취업	n(%)	606(46.2)	412(35.2)	361(33.6)	517(48.2)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령의 경우 4개국 모두 평균연령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별로 연령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일본은 약 49세, 스웨덴은 47세, 미국은 약 45세, 한국은 약 42세로 한국 표본의 연령이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 분포의 경우 4개국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은 남성 41.9% 그리고 여성 58.1%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한국, 스웨덴, 일본의 경우 약 12년의 평균 교육연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약 13.5년의 평균 교육연수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교육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1.5년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상태의 분포는 동양권 국가와 서양권 국가 간에 현저한 패턴차이를 보이고 있다. ISSP와 KGSS에서는 결혼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기혼', '사별', '이혼', '별거', '결혼한적 없음'으로 크게 5가지 분류방식을 선택하여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적합한 변수로 재코딩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혼상태 변수를 '기혼=1'과 '미혼=0'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이항변수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국가별 결혼상태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즉 미국과 스웨덴 같은 서양권 국가는 기혼이 각각 47.8%, 50.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양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기혼이 각각 67.0%, 71.1%를 차지하고 있어 동양권 국가의 자료에 기혼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의 분포도 기혼상태처럼 동서양의 패턴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취업자의 분포가 각각 64.8%, 66.4%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취업자의 분포가 각각 53.8%, 51.8%로 나타나 미국과 스웨덴의 취업자 비중이 한국과 일본보다 약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이며,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indicator)로서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를 포함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2> 참고).

#### 1) 가족가치관(Family Value Orientations)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ISSP와 KGSS의 질문문항 중 가족가치 및 태도와 관련된 공통문항 7개 모두를 활용하였다. 가족가치관을 측정된 문항들은 결혼, 한부모가정, 동거, 이혼과 같은 가족유형에 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서 현재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관해 응답자가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잘못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낫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도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러한 질문에 관해 응답자는 '매우 동의한다=1점'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점'까지의 응답범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총 7문항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잘못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나머지 문항과 달리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기술하고 있어 다른 문항과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주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총 7문항을 합산하여 가족가치관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나타낸다. 가족가치관의 평균은 20.57, 표준편차는 5.20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0.67로 나타났다.

#### 2)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

성역할태도와 관련된 문항은 ISSP와 KGSS에 총 11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항 모두기혼여성의 취업 및 성역할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ISSP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 연구(Braun, 1998; Stickney & Konrad, 2007)에 따라 국제비교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항인 다음의 5문항을 사용

&lt;표 2&gt;종속변수와 인구학적 변수

변 수		n	%	평균(표준편차)	범위	$\alpha$
가족가치관		4062		20.57( 5.20)	7~35	.67
성역할태도		4334		11.34( 4.08)	4~20	.74
연 령		4689		45.51(16.74)	16~94	
성	남=1	2096	44.6			
	여=0	2602	55.4			
교육수준	교육연수	4281		12.57( 3.22)		
결혼상태	기혼=1	2777	59.1			
	미혼=0	1903	40.5			
취업상태	취업=1	2734	58.2			
	미취업=0	1896	40.4			

&lt;표 3&gt;성역할태도에 대한 주성분분석

요 인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성역할태도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767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813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660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735
Eigen Value		2.269
설명력(%)		45.374

하여 성역할태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5개의 문항 중 ‘남자나 여자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기술하고 있고 나머지 4문항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기술하고 있어 문항 간 일관성을 위해 후자의 4문항을 역코딩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앞서 밝힌 5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해본 결과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한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표 3> 참고):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요인으로 묶인 4가지 항목만으로 성역할태도를 산출하기로 하였다. 성역할태도의 산출방식은 합산방식을 채택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는다. 평균은 11.34, 표준편차는

4.08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0.74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 3) 사회경제적 상태

본 연구에 사용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분석대상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를 포함하였다. 가치관과 태도는 각국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또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성을 보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인 변수로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 등이 사용되었다. 먼저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 김태현과 임선영(2004)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이 비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과 취업상태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인 경향성을 띄고 있고, 대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지만 임금노동을 하는 사람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인다고 한다(양명숙, 1996; Thorton & Freedman, 1979). 한편, 결혼 상태는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뚜렷한 국내 연구의 결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스웨덴의 경우 동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로서 결혼한 사람과 동거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 상태를 인구학적인 변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내 다양성을 알아보는 변수로서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를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인 변수(demographic variables)’로 지칭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46세(평균=45.51, 표준편차=16.74)였고, 성별은 남성이 2096명으로 44.6%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서 측정하였는데, 평균 13년 정도(평균=12.57, 표준편차=3.2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ISSP와 KGSS에서는 기혼, 사별, 이혼, 별거, 결혼한적 없음으로 크게 5가지 분류방식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적합한 변수로 재코딩하였고, 이 과정에서 결혼상태 변수를 ‘기혼=1’, ‘기혼 아님(미혼)=0’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이항변수로서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고로 스웨덴의 자료에서는 이 나라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진 동거를 ‘결혼한적 없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기혼 아님’의 범주에는 ‘사별’, ‘이혼’, ‘별거’, ‘결혼한적 없음’이 모두 포함되었고, 분석에 활용된 사람들의 경우 기혼이 2777명으로 59.1%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여부 역시 ‘취업=1’과 ‘취업 아님(미취업)=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취업’의 범주에는 ‘전일제 취업’과 ‘시간제 취업’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취업’ 아님의 범주에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봄’, ‘미취업’, ‘은퇴’, ‘가정주부’, ‘장애로 인한 미취업’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학적인 변수를 통제하고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한국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한국-미국, 한국-스웨덴, 한국-일본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과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를 보인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각국마다 인구학적 변수가 가족가치관과 성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가치관과 성역할에 관한 국가 간 비교와 국가 내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분리하기 위해 전자를 통합모형(Full Model)으로, 후자를 분리모형(Separate Model)으로 지칭한다.

IV. 연구결과

1. 가족가치관의 4개국 비교: 통합모형(Full Model)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가족가치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가족가치관을 종속변수로, 국가변수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미국(B= -2.022, p<.001), 스웨덴(B= -6.593, p<.001), 일본(B= -3.409, p<.001) 모두 한국에 비해 가족가치관의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가치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2. 성역할태도의 4개국 비교: 통합모형(Full Model)

한국의 성역할태도 수준이 미국, 스웨덴, 일본과 비교했을 때 과연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차이를 보인다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역할태도를 종속변수로, 국가변수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있

<표 4> 가족가치관의 4개국 비교: 통합모형 (n=3659)

변 수	Model 1
	B (S.E.)
상 수	18.549***(.444)
연 령	.091***(.005)
성(남성=1)	.821***(.148)
교육(년)	-.043(.024)
결혼상태(기혼=1)	1.714** (.156)
취업유무(취업=1)	-.539** (.160)
국가(준거집단=한국)	
미 국	-2.022***(.195)
스웨덴	-6.593***(.210)
일 본	-3.409***(.204)
R <sup>2</sup>	.344***

\*p<.05, \*\*p<.01, \*\*\*p<.001

<표 5> 성역할태도의 4개국 비교: 통합모형 (n=3896)

변 수	Model 1
	B (S.E.)
상 수	14.155***(.362)
연 령	.042***(.004)
성(남성=1)	.940***(.119)
교육(년)	-.215***(.019)
결혼상태(기혼=1)	.434** (.126)
취업유무(취업=1)	-.717***(.129)
국가(준거집단=한국)	
미 국	-2.544***(.160)
스웨덴	-4.263***(.168)
일 본	-2.773***(.166)
R <sup>2</sup>	.250***

\*p<.05, \*\*p<.01, \*\*\*p<.001

다. 분석결과 한국은 미국, 스웨덴, 일본과 성역할태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B= -2.544, p<.001), 스웨덴(B= -4.263, p<.001), 일본(B= -2.773, p<.001) 모두 한국에 비해 성역할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역할태도가 가장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4개국의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가치관의 인과관계: 분리모형(Separate Model)

각국의 가족가치관에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상태로 측정된 인구학적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 가족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결혼 상태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가족가치관이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차레로, B= .106, p<.001, B= 1.247, p<.001).

다음으로 미국은 한국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가족가치관이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차레로, B= .088, p<.001, B= 2.367, p<.001). 그러나 한국과 달리 성별과 취업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인구학적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가족가치관은 더 전통적이었던 반면,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가족가치관 점수가 낮아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레로, B= 1.165, p<.001, B= -.966, p<.01).

스웨덴의 경우 가족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연령, 성, 결혼 상태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B=.052, p<.001), 남성일수록(B= 1.665, p<.001),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B= 2.055, p<.001) 가족가치관은 더 전통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 미국, 스웨덴처럼 연령과 결

혼상태가 가족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가족가치관 점수가 높아져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였다(차레로, B= .107, p<.001, B= 1.005, p<.05). 그러나 다른 나라와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교육수준이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 점수는 낮아져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이는 경향성을 띄고 있다(B= -.169, p<.05).

요컨대, 각국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을 규명해본 결과 연령과 결혼 상태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가족가치관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미국과 스웨덴에서만 유의미한 변수로, 교육은 일본에서만 유의미한 변수로, 마지막으로 취업유무는 미국에서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4. 4개국의 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태도의 인과관계: 분리모형(Separate Model)

인구학적 변수가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별 분석을 위해,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따로 실시하였다. 나라별로 성역할태도를 종속변수로, 연령, 성, 교육, 결혼상태, 취업유무로 이루어진 인구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성역할태도에 모든 인구학적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아질수록(B=.043, p<.001), 여성보다는 남성의(B=.457, p<.05),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의(B=.957, p<.001) 성역할태도가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레로, B=-.069, p<.05, B=-.673, p<.01).

미국의 경우도 한국과 같이 거의 모든 인구학적 변수가 유의

<표 6> 4개국의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가치관의 인과관계: 분리모형

변 수	한국(n=1021)	미국(n=1063)	스웨덴(n=774)	일본(n=801)
	B (S.E.)	B (S.E.)	B (S.E.)	B (S.E.)
상 수	17.990***(.854)	14.784***(.861)	12.990***(.809)	16.742***(1.193)
연 령	.106***(.011)	.088***(.009)	.052***(.011)	.107***(.012)
성(남성=1)	.277(.265)	1.165***(.289)	1.665***(.284)	.131(.356)
교육(년)	-.025(.041)	.083(.052)	-.062(.041)	-.169*(.067)
결혼상태(기혼=1)	1.247***(.281)	2.367***(.286)	2.055***(.309)	1.005*(.403)
취업유무(취업=1)	-.050(.268)	-.966**(.323)	-.003(.321)	-.570(.387)
R <sup>2</sup>	.168***	.181***	.182***	.191***

\*p<.05, \*\*p<.01, \*\*\*p<.001

<표 7> 4개국의 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태도의 인과관계: 분리모형

변 수	한국(n=1059)	미국(n=1090)	스웨덴(n=874)	일본(n=873)
	B (S.E.)	B (S.E.)	B (S.E.)	B (S.E.)
상 수	12.120***(.646)	11.608***(.763)	10.040***(.635)	13.568***(.978)
연 령	.043***(.008)	.054***(.008)	.050***(.008)	.029**(.010)
성(남성=1)	.457*(.200)	1.561***(.253)	1.053***(.223)	.582*(.281)
교육(년)	-.069*(.031)	-.275***(.046)	-.281***(.032)	-.282***(.054)
결혼상태(기혼=1)	.957***(.213)	.312(.250)	.406(.243)	-.137(.320)
취업유무(취업=1)	-.673**(.203)	-.586*(.283)	-.346(.250)	-.908**(.307)
R <sup>2</sup>	.109***	.122***	.214***	.105***

\*p<.05, \*\*p<.01, \*\*\*p<.001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B=.054, p<.001),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의(B=1.561, p<.001) 성역할태도가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결혼 상태는 성역할태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과 교육수준도 한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사람일수록 성역할태도 점수가 낮아져 비전통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례로, B=-.275, p<.001, B=-.586, p<.05).

스웨덴은 분석결과 연령, 성별, 교육만이 성역할태도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더 전통적인 경향성을 보였고,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전통적인 경향성을 나타냈다(차례로, B=.050, p<.001, B=1.053, p<.001, B=-.281, p<.001).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과 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B=.029, p<.001), 여성보다는 남성의(B=.582, p<.05) 성역할태도가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고(B=-.282, p<.001),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B=-.908, p<.01)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스웨덴, 일본과 비교해보았을 때 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태도의 인과관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결혼상태가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V. 결과해석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미국, 스웨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가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가치관 변수와 인구학적 변수의 관계 메커니즘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미국, 스웨덴,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높은 이혼율, 낮은 출산율, 결혼의 지연이 우리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분석(김혜경, 2001; 안호용·김홍주, 2000; 함인희 2002c)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분석 결과에서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즉 우리사회의 급속한 가족형태의 변화 이면에는 가치관의 세대별, 성별, 계층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가치관의 혼재로 인한 사회갈등의 잠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가족가치관의 경우 한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연령과 결혼상태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한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이 연령과 결혼 상태에 따라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가족변화를 이끌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모두에게서 연령과 결혼상태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가족가치관이 더 전통적인 경향성을 보였다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가족가치관이 더욱더 전통적이지만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성이 다른 사회보다 더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가족변화에 가족가치관 수준의 연령별, 결혼 상태별 다양성이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결혼의 지연과 관련 있다고 보긴 어렵다.

성역할태도는 가족가치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모두에서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모든 인구학적 변수가 성역할태도의 예측변수로 나타나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성역할 태도의 존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의,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성역할태도가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던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가치관의 존재가 가족가치관보다는 성역할태도에서 더 심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호용과 김홍주(2000)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급속한 가족변화는 외적으로는 이혼의 증가, 결혼의 지연,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같은 가족의 다양성의 출현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형태의 다양성 이면에는 가족이념과 변화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이질성이 높아 이해갈등의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호용과 김홍주(2000)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나 국제비교를 통해 가족가치관에서 성역할태도를 분리시켜 가족가치관보다는 성역할태도가 가치관의 존재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사회 성역할태도의 연령, 성,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서의 차이는 앞서 지적하였듯 사회갈등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가치관의 존재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남성의 경제적 지위하락, 여성의 취업증가, IMF 이후 심화된 중산층의 공동화 현상, 그리고 그 밖에 우리사회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요소가 낳은 하나의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치관의 존재는 어쩌면 다양한 가족형태와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가치관의 존재와 가족변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전통적인 경향성을 띤다. 이러한 전통적인 특성은 현재 한국의 급속한 가족변화와는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인구학적 변인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른 사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사회 성역할태도의 연령, 성,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존재양상은 사회갈등, 나아가 가족갈등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성역할 태도의 존재는 현재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인 양극화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태도변화를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개입과 함께, 가족역할분담의 평등성 지향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기연 · 신수진 · 최혜경(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세대 간 유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김상욱(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2005.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6년. 자료버전 v2. 자료번호: A-2005-0001.
- 김태현 · 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85-109.
- 김혜경(2001). 가족/노동의 갈등구조와 '가족연대' 전략을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가족과 문화**, 14(1), 31-52.
-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17(1), 115-146.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서울: 교문사.
- 안호용 · 김홍주 (2000). 한국 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3, 89-132.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 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육선화(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은기수 · 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5.
- 정연택(2008). 남유럽과 동아시아 가족 및 성역할 태도와 상황 비교 연구. **사회복지연구**, 38, 61-91.
- 정자환(1983). 서울 변두리 가족생활의 변화와 연속. 한상복(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심설당.
- 함인희(2002a). 우리는 동거로 가고 있다. **우리 동거 할까요**. 함인희(편). 서울: 코드.
- 함인희(2002b). 가족, 세대갈등의 역동적 무대. **계간사상, 가을호**, 191-213.
- 함인희(2002c). 한국 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14(3), 164-184.
- 후생성 통계정보부(2004). 인구동태통계.
- Ahlburg, D. & De Vita, C. (1992). New Realities of the American Family. **Population Bulletin**, 47, 1-50.
- Amato, P. & A. Booth. (1997). *Generation at Risk: Growing Up in an Era of Family Upheava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ianchi, S. & Casper, L. (2000). American Families. **Population**

- Bulletin*, 55(4), 1-43.
- Cherlin, A. (1992).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wan, P. (1993). The Sky Is Falling, but Popenoe's Analysis Won't Help Us Do Anything about I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48-553.
- Curtin, J. S. (2002). The Current State of Divorce in Japan: A Record Number of Marital Dissolution in 2001. *Social Trends: Series #B, GLOCOM Platform*, 24 September 2002.
- Easterlin, R. A. (1978). What Will 1984 Be Lik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Recent Twists in the Age Structure. *Demography*, 15, 397-432.
- EUROSTAT (2004). *Population Statistic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Fine, M. & Fine, D. (1994).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Recent Changes in Divorce Laws in Five Western Countries: The Critical Role of Val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249-263.
- Glenn, N. (1996) Values, Attitudes, and the State of American Marriage. In D. Popenoe, J. Elshtain, & D. Blankenhorn (Eds.), *Promise to Keep: Decline and Renewal of Marriage in America*(pp. 15-33).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Goode, W. J. (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Y.: Free Press.
- Hoem, J. M. (1997). Educational Gradients in Divorce Risks in Sweden in Recent Decades. *Population Studies*, 51, 19-27.
- Popenoe, D. (1987). Beyond the Nuclear Family: A Statistical Portrait of the Changing Family in Swed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173-83.
- Popenoe, D. (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27-555.
- Ruggles, S. (1997). The Rise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1880-1990, *Demography*, 34(Nov 1997), 455-466.
- Scholz, E., Harkness, J. & Klein, S. (2003). ISSP 2002 Germany,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ZUMA Report on the German Study. ZUMA Methodenbericht 2003/15.
- South, S. & Lloyd, K. (1995). Spousal Alternative and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21-35.
- Tanaka, K. (1992). Changing Marriage and Family Structure: Women's Perspective. *Japan Labor Bulletin*, 31(1).
- Thornton, A. & Freedman, D. (1979). Changes in the Sex-Role Attitudes of Women, 1962-1977."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831-842.
- US Bureau of the Census (2006),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6. Washington, D.C.
- Waite, L., Goldscheider, F. & Witsberger, C. (1986). Nonfamily Living and the Erosion of Traditional Family Orientations among Young Adul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541-54.

접수일 : 2009년 03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3월 19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6월 24일